

진화론이 윤리학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가?

김기윤

명지대학교 인문학연구소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kiyoonkim@hanmanil.net

목 차

1. 윤리학에 관한 논의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진화론
2. 서양의 역사 속에서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의 전통
3. 다윈과 19세기의 진화윤리학
4. 20세기 초, 중반의 진화윤리학
5. 현대사회에서의 자연학과 윤리학
6. 사회 생물학과 진화윤리학에 관한 몇 가지 연구 의제들

1. 윤리학에 관한 논의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진화론

바야흐로 진화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20세기 전반, 유전학이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자연선택이 진화의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일 것이라는 다윈의 믿음이 확인된 듯 싶었다. 그리고 해부학이나 생리학은 물론 생태학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생명현상들이 진화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리라는 점을 생물학자들은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분자생물학의 연구결과들은 많은 생명현상들을 물리적 화학적 수준의 논의를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했고, 생물학자들은 생명현상들이 물리학이나 화학과 비슷한 정도의 실증적인 과학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진화론은 생명과학 내에서 유전학, 발생학 및 생태학까지도 포함하는 통합과학으로서의 생물학을 형성해 가는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진화론은 생물학의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나 의학, 경제학, 철학 등의 분야에 갖가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거대 담론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진화의학, 진화경제학, 진화인식론, 진화심리학에 이어 진화윤리학이라는 분야까지 등장했다. 왜 인간은 특정한 종류의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가? 어떻게 진화이론이 고전적인 경제 이론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현상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의 인지능력이 진화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을 고려할 경우, 인간의 인지능력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등 이들 각 분야들은 모두 진화론으로부터 중요한 통찰을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 통찰을 얻어내는 기본전제나 방법은 물론, 통찰을 주는 진화론의 내용, 얻어낼 수 있는 통찰의 종류 등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화론으로부터 통찰을 얻어내고 있는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진화윤리학이라는 분야는 윤리학이라는 분야 자체의 전통적인 논의 양식 속에서는 거의 모순을 안고 있는 단어처럼 들린다. 윤리학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행위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다루는 규범윤리학이며, 진화론이라는 자연과학이 규범윤리학에 던질 수 있는 성찰이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사소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직관이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후, 과학서의 일반 독자들 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윤리의식의 진화라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규범윤리학의 값을 매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걸친 진화의 산물이라면, 인간의 행동 및 심성에 대한 연구에 진화생물학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번역 출판된 로버트 라이트의 『도덕적 동물』이나 기타 윌슨의 사회생물학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화론적 그리고 유전학적 연구에 기초한 인간의 심성에 관한 갖가지 논의들을 다룬 책들의 서평을 살펴보면, 진화윤리학에 관한 일부 생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상당히 과장된 주장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열광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2. 서양의 역사 속에서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의전통

서양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지식이 과연 하나인가 또는 여러 가지인가 하는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다양한 사변적 토론들이 시도되던 중세 후기 서양에서의 일이었다. 일견 스콜라 철학자들의 무의미한 논전들 중의 하나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인간이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자신의 갖가지 지식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되풀이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성찰 과정이기도 했다. 고대 이래로 서양의 지적 전통은 대체로 지식을 그 대상이나 습득방법 등에 따라 분류해가면서, 한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기시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적용을 매우 망설이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사회 내에서의 인간의 가치와 윤리 문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각별히 조심스러운 태도는 서양 지성사의 초창기부터 바로 이러한 지식의 영역을 차별화 하는 논의들의 핵심에 있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행위 즉 “메타베이스스”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특히 윤리학은 사람들 사이의 합의의 문제이며, 자연학의 이론적 구도 및 내용이 끼어 들 수 없는 분야인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 한 종류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연학과 수학은 다른 분야이지만 수학은 종종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논의로부터, 한 종류의 지식이 다른 종류의 지식의 근거를 보여주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지식들 사이의 위계를 찾는데 몰두하기도 했다. 메타베이스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이미 중세 철학자들에 의해 활발해지는 학문 분야 사이의 교차 적용을 위한 지식들 사이의 위계에 관한 논의의 씨앗을 던지고 있었던 셈이다.

사실과 당위의 영역 구분에 관한 계몽철학자들 특히 데이비드 흙의 조심스러운 발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지속되어 온 이러한 지식의 종류와, 이 지식들 사이의 교차적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오해와 혼란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 흙이 새삼 사실과 당위의 문제에 대해 그토록 날카로운 감성을 버리게 되었을까? 전통적인 이해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흙 자신이 계몽기의 근대적 기획, 즉 과학혁명기에 뚜렷이 형성된 자연과학의 지식 획득 방법과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인간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흙을 비롯한 계몽철학자들이 지녔던 인간의 감각 및 인지 능력의 기원이나 윤리의식의 뿌리 등에 관한 관심은 17세기 이래로 인간의 마음을 그 밖의 자연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제시된 후 극명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간의 감각이나 도덕적 감상의 기원에 관한 자연학적 이해를 위한 논의가 유달리 활발해지는 배경에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각을 다루는 지식과 여타의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태도가 17세기 중

형성되었던 사실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렇게 사실과 당위의 구별에 관한 학자들의 의식적인 깨달음이란 사실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에 관한 지식들의 독자적인 논의 공간을 지닌 개별 영역을 전제하는 전통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

3. 다윈과 19세기의 진화윤리학

그런 가운데에도 물론 자연학이 인간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찰스 다윈의 역할은 유별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이클 기젤린은 다윈이 동물학, 식물학의 잘 알려져 있던 분야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나 동물의 감정표현, 식물의 생장이나 움직임 또는 지렁이와 토양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소 생소해 보이는 분야들에서도 생물의 형태 및 행태가 자연선택의 결과일 수 있음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다윈의 작품들을 통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렵지 않게 기젤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성은 물론, 인류의 문명 역시 자연선택 과정을 통한 진화의 결과로 그려보려는 다윈의 노력은 그의 『인간의 유래』를 통하여 잘 표현되었다. 『인간의 유래』에서 독자들은 다윈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감성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이 보여주는 지적인 능력과 감성이 자연선택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윤리의식의 진화에 관한 다윈의 견해는 그의 『종의기원』에서 동시대인들이 읽었던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 투쟁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집단생활을 하는 개체, 특히 인간집단은 이기적인 동기보다는 사회적 본능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향의 진화를 통하여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다.

다윈의 윤리의식과 진화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인간의 심리 및 사회가 다른 동물들의 행태 및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질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는데 맞추어져 있었다면,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윤리”는 자신과 동시대인들에게 개인주의의 소중함과 미래로 이어지면서 진보를 보장하는 산업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아래 과거 생명의 발전사 즉 진화를 보여주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다. 즉, 스펜서의 관심은 좀 더 직접적으로 당시의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 영국의 구빈법을 반대하는 스펜서의 모습에서 많은 학자들은 약자들은 도태 되어야한다는 사회다윈주의의 모습을 본다. 하지만 스펜서 자신은 당시의 구빈법이 일부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재정정보조라는 미봉책을 통하여 대부분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한도 내에서 묶어두려는 사회적 강자들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이 약자의 도태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다윈주의의 사회적 힘을 무력화시켜주지는 못한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 사회다윈주의의 영향은 스펜서 자신의 도덕적인 이상보다 훨씬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펜서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자연과학의 이론적 기반은 흔히 특정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의도아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이론이 또한 전혀 다른 사회상을 지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레슬리 스티븐의 진화윤리학에서도 1870년대 영국사회의 갈등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스티븐은 전통적인 종교가 더 이상 사람들의 도덕률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논의가 종교를 대신해 도덕률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진화윤리학을 논하게 된다. 미국인 드러먼드나 피스키 역시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들 역시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가 윤리의식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전통적인 종교를 대신하여 윤리의식의 뿌리를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에서 찾게된다. 종교적으로 신실했던 사람들만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진화윤리학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윌리엄 클리포드와 같은 비 종교인 역시, 윤리의 뿌리가 사라져 간다고 느낀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과학으로부터 윤리의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벤저민 키드같은 사람은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영성의 진화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보려 했다. 사회다윈주의의 거칠고 횡포한 이론을 관찰한 초기의 학자들은 흔히 진화 이론을 인간 사회의 연구 및 적용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회 엘리트로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인간사에 적용하며 자신과 같은 기득권 층의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려왔다. 하지만 진화윤리학의 가능성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과 안녕을 찾으면서 자신이 살아가던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며 진화윤리를 논했다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무너져 가는 질서를 되찾으면서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화윤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듯 보이기도 한다.

윤리의식의 근원을 진화론 속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들은 19세기에 이미 토마스 헉슬리와 같은 과학자나 헨리 시지윅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일종의 논리적 오류의 결과로 평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G. E. 무어는 직관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명제의 이유를 자연 속에서 찾으려드는 이러한 시도에 “자연주의적 오류” 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A. J. 아이어 역시 도덕적 판단이란 경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이러한 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노력으로 보았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러한 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계속 남아 있었으나, 현대적인 학문분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심리학이나 인류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분위기는 인간의 윤리의식의 기원을 생물학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보다는 인간에 관한 제반 지식들이 자연과는 대척점에서 있는 존재인 문화에 바탕한 것으로 상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4. 20세기 초, 중반의 진화윤리학

19세기까지의 진화론 또는 다윈주의는 사실은 다윈적이기보다는 스펜서적 또는 라마르크적인 요소가 강했다. 다윈주의의 핵심인 자연선택의 역할은 널리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20세기 전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개체군 유전학은 염색체 풀의 변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입자적” 유전학과 다윈류의 “점진적” 진화론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모든 생물학 분야가 진화라는 배경 아래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줄리언 헉슬리가 만들어 낸 진화종합이라는 용어는 다윈주의의 핵심인 자연선택이 생물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줄리언 헉슬리의 진화윤리학은 그러나 단순히 진화종합이 보여주는 진화론 내에서의 과학적 설득력에 의해 추동된 것만은 아니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진화론에서 찾으려했던 줄리언 헉슬리의 개인적인 열망이 크게 작용했다. 생물학이 진화의 관점 아래서 통일된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생물학 내에서의 기대 역시 진화윤리의 논의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데 큰 몫을 하였다.

시사적인 점은 경쟁과 도태를 통한 진화뿐 아니라 협동을 통한 생존에 초점을 두는 진화이론 역시 비슷한 이유 즉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인간사회에 대한 도덕적 고려아래 만들어지고 또 응용되곤 하였다는 사실이다. 역사학자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전후한 불안한 환경이 어떻게 이들 생물학자들의 이론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에 생물들은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것만은 아니어서, 협동과 공존의 모색이 생존에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음을 강조한다. 진화 및 생태적 변화 과정에서 생물들 사이의 협동을 강조한 생태학자 워더 클라이드 엘리가 대표적인 예이며, 자연상태에서 생물들 사이의 협동을 천착하는 크로포트킨이 여러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독자로 부상되는 모습에서도 역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안정된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경쟁의 중요성이나 협동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양쪽이 모두 사회를 위한 가치관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그 근거를 과학에서 찾는 과정에서 강조된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경쟁과 투쟁과 선택을 통하여 진보하는 인류상을 추구하거나 협동과 도움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상을 추구할 때 과학에서 도움을 찾는 행위는 과연 옳은 것일까? 또는 필요한 일일까? 마땅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궁여지책은 아니었을까?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의 DNA 구조에 관한 연구 및 이에서 시작된 분자생물학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생명의 “기본단위” 들을 찾아내는 연구결과들 역시 진화윤리학에 대한 큰 기대를 만들어냈다. 색다른 점은 20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하던 줄리언 헉슬리, C. H. 워딩튼, 뉘잔스키, 심프슨, 또는 메다워 등이 진화론으로부터 인간은 자신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하게 진보된 능력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였던 데 반해서, 이들 분자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여러 형질들 역시 단순한 생존능력과 생물학적인 생식능력이 자연선택 과정을 거친 결과일 뿐임을 강조한다. 크릭, 모노, 델브뤼크, 스텐트 등은 인간의 마음, 학습, 그리고 행위 등이 결국은 물리화학적 작용의 결과이며, 20세기 전반의 휴머니스트들이 강조하려 들었던 인간의 독특한 마음과 문화는 결국 환상이어서 생물학적인 인간본성에 대한 오해를 낳고, 따라서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

분자생물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에 입각하여,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분자생물학자들의 자신만만한 환원론적인 입장은 통일된 정치적 입장이나 이데올로기로 묶여있었다기보다는 인간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분석하며 또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시대적 열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왓슨이나 크릭의 연구 이전부터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살펴보려는 학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카네기 재단의 연구지원자들의 입장은 인류의 평화와 의료의 발달을 추구하는 박애정신에 기초했던 듯하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생각해 두자. 이렇게 시대적 열망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는 점 자체가 그 논의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이러한 열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지식들 특히 인간과 그 사회에 관한 지식에는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메타포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신념, 기본 전제 등의 그림자가 깔리게 된다. 과학적 사실이란 이러한 과학 외부적 영향을 없애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문화요소들 속에서 그 일부로서 만들어지는 측면을 지닌다. 과학적 사실들이 윤리학적 논의에 던지는 함의는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5. 현대사회에서의 자연학과 윤리학

현대 사회에서 진화과학과 인간의 윤리의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생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철학자들의 관심은 일단 진화론과 윤리의식의 진화라는 주제보다는, 좀 더 폭넓은 철학의 자연화라는 주제 아래서 시작되었다. 철학자들은 여러 철학적 논의들, 특히 인간의 마음과 윤리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이 오랫동안 엄정한 경험적 근거를 결여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마음과 윤리에 관한 그간의 철학적 논의들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졌으며, 그 해결책을 철학자들은 철학의 자연화에서 찾기 시작한다. 즉 인간의 인지능력, 마음, 심지어 윤리적 감각의 근거를 자연과학적 사실에서 찾고자 한다.

진화윤리학이라는 연구분야는 이렇게 철학 및 인간과학의 근거를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에서 찾으려는 강력한 추세의 일면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연히 생명과학의 변화에 크게 힘입었다. 진화이론 안에 발생학과 유전학이 통합되어 이해되기 시작한 생명과학의 급속한 변화는 인간의 심리 및 인지능력의 형성을 자연화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았으며, 일부 자연과학자들은 심지어 윤리학이 결국 자연학, 즉 생물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리라고 까지 생각한다. 인간의 윤리의식을 철학의 자연화가 가능한가라는 틀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많은 철학자들 역시 이제 인간의 마음에 관한 그리고 윤리에 관한 논의가 철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찰스 다윈 이래로 인간의 마음 그리고 행동을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로 그려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왔다. 다윈을 전후하여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에 관한 관심, 특히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을 다른 동, 식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려는 능동적인 시도들이 나타난다. 이는 서양의 역사 속에서 동물, 식물은 물론 인간이나 천사, 신과 같은 존재까지도 차별화 된 그러나 연속적인 위계 속에서 바라보는 뿌리깊은 심상에서 시작되어 지구상의 생물이 겪어온 오랜 과거의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진화론의 결과이다. 다윈 자신도 인간의 도덕적 감각이라는 자의식이 결국은 동물들의 사회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허버트 스펜서는 좀 더 정교하게 인간의 윤리의식이 진화의 결과임을 주장했는데, 다윈에게나 스펜서에게나 윤리의식의 뿌리는 이타적인 사고 및 행위 즉 한 생물개체 자신의 생존보다는 그 개체가 속한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선택하는 개체의 의식이며 행위였다. 20세기 전반에도 인간의 윤리의식을 진화의 배경 속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진행된 진화의 종합은 이러한 노력에 희망을 던져주는 배경이 되었다. 줄리언 헉슬리나 워딩턴 같은 학자들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진화윤리학의 논객들이었지만, 대다수의 철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여타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일부 생물학자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꿈처럼 보였으며, 진화윤리학이라는 논의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한 학문분야로 대학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이 시기에는 인간의 윤리란 자연학이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독자적인 분야 즉 인간이 만든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으며, 이들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 낸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생물학 내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폭넓은 대중들의 관심과 함께 철학, 인류학은 물론 역사학계에 긍정적인 동조자들을 만들어가며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인간의 윤리의식이 진화를 거치며 일종의 자연선택을 거친 적응의 결과일 것이라는 이 최근의 논의는 19세기 스펜서류의 사회 다윈주의에 기초한 진화윤리학이나 20세기 중반 줄리언 헉슬리류의 휴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진화윤리학과는 달리 명백한 경험과학적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이 이들 긍정적인 동조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인간의 윤리의식을 진화의 결과로 해설하려드는 노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논의라는 것은 19세기이래 계속되어 온 일부 과학자들의 시도, 즉 자신들의 가치관과 열망 그리고 서양 사회의 틀을 자연 속에 투영시켜보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체계들 사이의 구별 및 위계에 관한 오랜 논의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외의 자연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19세기 이래의 논의들의 역사적 고찰은 윤리학이 생물학의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즉 윤리학의 자연화에 대한 철학자들의 희망을 좀 더 다각적으로 조망하여 그 무게를 가늠하는 시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한 편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사회생물학에 바탕한 진화윤리학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이론이며 또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이론임을 주장하지만, 진화윤리학을 꿈꾸는 과학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삶의 환경, 즉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 또는

사회주의 사회의 협동원리를 변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분석은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진화윤리학의 논의들은, 특히 진화윤리학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변자들은 자신의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를 떠받들고 있거나 또는 일종의 개혁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윤리학자들의 논의가 어떻게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이데올로기를 진화론에 투영했는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고자 했는가 또는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관찰로부터 잘 드러난다. 진화윤리학에 긍정적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일반적인 이해는 규범적인 진화윤리학이 불가능한 시도일지라도, 윤리의식이 인간의 의식의 진화결과라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며 또 정당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운 의미의 진화윤리학조차도 긍정적인 논자들의 입장은 과학 및 과학적 사실의 위상에 대해 아직도 오래된 실증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6. 사회 생물학과 진화윤리학에 관한 몇 가지 연구 의제들

1975년에 출판된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훨씬 더 정교한 진화윤리학의 밑그림을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었다. 동물 행태학이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윌슨은 이전의 콘라드 로렌츠같은 행태학자들과는 달리, 순수한 경험과학으로서의 동물행태학이 인간에게로 확장될 수 있음을 주창한다. 사회생물학의 싹은 1970년대 이전에 행태학자들에 의해 다져져왔다. 윌슨 자신은 이들 행태학자들의 진화윤리론이 방법론적으로 매우 허술하고 또 선정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 그의 사회생물학이 출판되기 전부터 *New York Times* 첫면에 그의 생물학에 기초한,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내용이 실리는 데에는 로렌츠나 틴베르겐 그리고 폰 프리시의 행태학적 연구가 그 배경에 있었다. 그리고 물론 1974년에 노벨생리의학상이 이례적으로 이들 세 사람의 행태학자들에게 주어진 사건은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이미 거대한 학계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리처드 도킨스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진화윤리학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만, 그의 이기적인 유전자 및 눈 먼 시계공으로서의 자연선택의 역할에 대한 정교한 논의들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그려내는데 대한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윌슨이나 도킨스에 대한 르윈틴이나 굴드 그리고 인민을 위한 과학자들의 모임 등의 신좌파 학자들은 윌슨의 사회생물학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뒷받침하고 또 과학자들의 엘리트의식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읽어낸다. 이들은 윌슨의 사회생물학으로부터 과거의 사회진화론이나 나치의 인종주의를 뒷받침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를

읽어내면서, 사회생물학이 과학적으로도 오류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 역시 분명히 한다. 인류학, 역사학 및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철학자들 역시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윌슨을 바라보았다. 인류학자인 마셜 샬린즈는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이 결국 생물학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윌슨의 조망이 위험한 관견임을 논한다. 이렇게 강한 반대와 긴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만큼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개진되는 상황은 이전의 진화윤리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어서 바라시, 라이트 등 열광적인 동조자들이 나타난다. 결국 루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철학자, 데글러와 같은 명망 있는 역사학자들이 진화생물학의 여러 기본전제 및 미래의 기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되어갔다, 우리 나라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강한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윤리학이 철학자들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1975년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전의 논의들에서 윤리학의 생물학화가 던지는 시사점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왔던 이유로 던져진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자생물학에 기초한 새로운 진화론이 과연 사실과 당위의 문제 사이에 대한 오랜 금기를 넘어설 수 있을만큼 강력한 경험적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인간의 감성적 측면들이 진정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현대의 이론인 포괄적응도란 개념이 정말 자연에서 사회생물학 책들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행동 및 심리 패턴들이 진화를 통해서 등장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사회생물학의 기본전제 및 용어들이 과연 윌슨 등이 주장처럼 실증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인가?

이러한 오래된 되풀이되는 의문 외에도 새로이 드러나는 약점들도 있다. 새로운 경험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을 주창하는 논의자들이 경험과학이 던지는 과학적 사실들을 기술해 나가는데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 개념 속에서 논리적인 구도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과학에 관한 최근의 역사적, 사회학적 연구들은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지니고 있는 경험 과학적 사실의 중요성이나 사상사 중심의 과학관이 지니는 논리적, 이론적 틀 외에도 많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과학지식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윌슨, 로버트 리처즈, 그리고 루즈 등 진화윤리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과학의 성격에 관한 이러한 물질적 제도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를 피해서 논지를 전개한다. 진화윤리학계의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클 루즈의 경우, 과학이 다양할 수 있고 또 과학적 사실들이란 논리적 사고의 결과이면서 또한 수많은 물질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들을 애써 외면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4년 11월 초순에는 진화윤리학의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이클 루즈가 한국에 와서 몇 차례의 강연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진화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아마도 진화윤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드는 고집스러운 학자들이 최신 진화론이 얼마나 정교한 경험과학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논의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아마도 상당히 단순한 실증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그의 과학관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을 단순화하여 사용하는 그의 전략이 그의 논의가 지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사회생물학이 던지는 많은 연구결과들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성찰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의 연구 결과가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때에는 과학, 즉 진화론이란 한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하며, 또 과학 즉 진화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전통적인 인간과학 즉 윤리학의 논의들이 지니는 중요성 등이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의 저작권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ioWave"에 있습니다.

일부 내용 인용 시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ioWave (<http://bric.postech.ac.kr/webzine>) Vol. 6 No. 5"으로 정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인용 시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사전 허락 (mail: biowave@bric.postech.ac.kr Tel: 054-279-8197~8)을 받으신 후 전제가 가능합니다. (단, 원 저작자의 경우는 정보출처만 밝히시면 됩니다.)